

1. 성경 들어가기

1. 성경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증언입니다. 즉, 성경의 ①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이며, ② 표현된 방식은 인간의 언어이며, ③ 그 전달 방식은 계시입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신성입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로 성경¹⁾이라고 부릅니다.

2) 그런데 그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 차원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책	본질	기록된 관점	표현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	고대인의 우주관	-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하늘의 구조 -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
자연 교과서	관찰된 내용	현대인의 우주관	- 지구라는 행성을 감싸는 대기권의 구조 - 지구의 나이 46억년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예로 들자면, 저자가 시의 형식을 통해 천지창조를 표현한 것이지, 과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객관적인 현상을 관찰하여 기록한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담고 있기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 말씀의 도구 삼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3) 성경은 계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관찰하여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고,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문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지시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계시: 알려주다, 나타내다, 드러낸다는 의미.]

성경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안에 간혀 계시지 않습니다.²⁾

종교개혁자 장 칼뱅(J. Calvin)은 하나님 말씀을 ① 말씀 그 자체, ② 기록된 말씀, ③ 들리는 말씀, ④ 보이는 말씀으로 구분하였고, 그 순서대로 효력의 강도가 약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설교가 성찬보다 정확하며, 설교보다 성경이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셨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수단들을 고안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성경과 성서의 차이는, 경전으로 보는 것을 강조하는지,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지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더 익숙하게 쓰는 신앙용어이고, '성서'는 책으로서 연구하는 신학적 접근에 더 자주 쓰이는 용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2가지 용어를 모두 혼용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이라고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2)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M.Luther)는 객관적 기준인 말씀의 우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뮌처(T.Münzer)는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말씀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선성'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비록 100권의 성경을 씹어먹을지라도 그 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육체적 배만 불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Ulrich

2. 성경은 저자와 편집자, 독자와 장르가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황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시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낸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 혹은 구전 시대에 그 내용을 전한 사람과 듣는 사람, 이후에 그것을 모아 편집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전하고 있지만, 그 성경책을 읽고 쓴 사람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저작 의도가 달랐습니다.

시작	구전	기록	편집	정경화
하나님의 말씀 (육성, 경험 등)	▶ 자신의 경험을 자녀와 가족, 함께 하는 공동체 등에 전함	▶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함	▶ 여러 군데에 기록된 것을 모아서 책으로 엮음	▶ 여러 책 중에 가장 진리를 잘 표현하는 책을 모아 정경으로 정리함
이 모든 단계와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딤후 3:16)				

3.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된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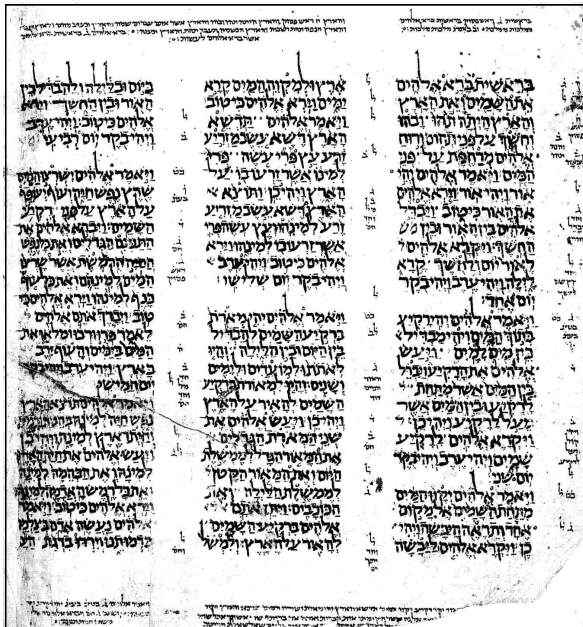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된 책입니다. 본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 등으로 기록된 것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읽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쓰인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성경의 문서는 사본입니다. 더 오래된 것일수록 권위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예로 들면, 가장 오래된 온전한 사본은 1008년에 작성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는, 레닌그라드 사본입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히브리어 원문이기에는 가치가 있지만, 기록 시기가 후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이가 남아있고 10세기 쯤 앞선 헬라어 번역 사본인 70인역이 여전히 가치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70인역과 비슷하거나 앞선 시기인데, 다량의 히브리어 사본을 보유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본들 중 어떤 것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인지 살펴보고 번역작업을 합니다. 물론 원문을 연구하며 번역한 것이, 제2의 언어인 영어나 일본어 성경을 참고하여 번역한 한글 성경보다 더 좋습니다. 번역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짧은 단계를 거쳤을 때 더 정확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책을 구입할 때 어떤 번역으로 된 것인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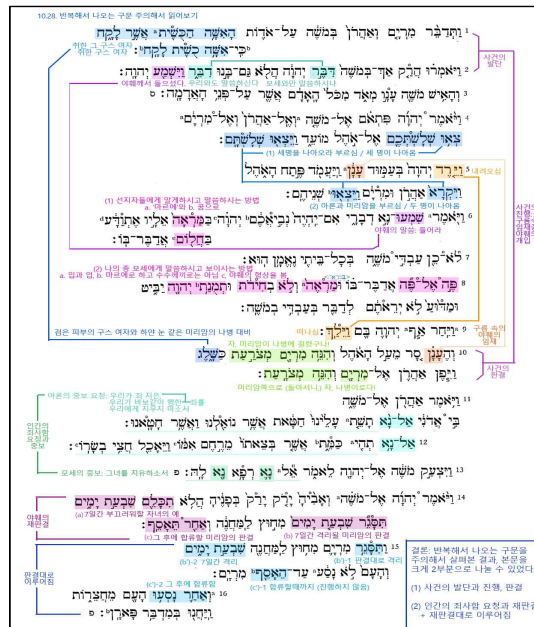
국내에 나와 있는 한글 공인 번역본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역한글판(1938, 56), 개역개정판(1998), 표준새번역(1993), 표준새번역개정판(2001), 공동번역(1976), 공동번역개정판(1999), 가톨릭새번역(2005). 그 외에는 검증되지 않은 번역본입니다. 아직도 성경 번역작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Zwingli)도 원초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99% 이상, 규정된 질서(말씀, 성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규정된 질서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진정한 의미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참고자료1) 구약성경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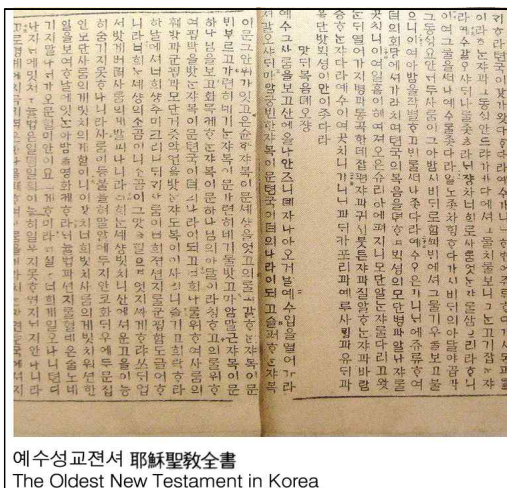


레닌그라드 사본의 창세기 1장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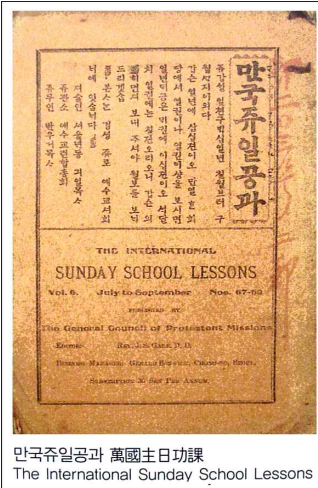


현대에 출판된 BHS 민수기 12장 부분

참고자료2)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의 사진들3)



예수성교전서 耶穌聖敎全書
The Oldest New Testament in Korea



만국주일공과 萬國主日功課
The International Sunday School Lessons

* 1895년 성서번역위원회에서 발행한 「마가복음」의 맨 첫 글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틴주의 아들 예수 그독 복음의 시작이니…”

- 3)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은 목회자이자 교육가였던 매산(梅山) 김양선(金良善)이 북한에 남겨둔 자료와 유물을 남한으로 반출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매산은 가족의 희생과 맞바꾸어 얻은 유물들을 1967년 4월 자신의 모교인 숭실대학교에 기증하였습니다. 열람객에게 개방된 박물관의 공간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는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기독교 역사실이 있습니다.

4. 성경은 여러 권의 책이 모여서 된 책이며, 그 목록과 분류, 순서는 제도적 교회 안에서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성경은 각기 다른 수십 개의 문서를 수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유대인과 로마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 개혁신교회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습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여깁니다. 성경이란, 그중에 어떤 책이 이 ‘규범’에 합당한지를, 교회가 모여 결정하는 공의회를 통해 결정하거나, 오래된 번역본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장르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39권)		* 기원후 90년, 얀니아 회의에서 선포된 정경 목록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 역사서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언서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27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바울서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1차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옥중서신 2차 디모데후서
	일반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구약의 경우, 로마가톨릭교회에서 쓰는 구약성경에는 개혁신교회에서 흔히 외경(外經)이라고 부르는 범주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7년에 나온 공동 번역을 따라 말한다면,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또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 덧붙은 부분이 외경에 속합니다.⁴⁾ 외경은 정경보다는 그 권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책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4) 구약 성경은 본디 대부분 히브리어로, 일부는 아람어로 쓰인 책인데, 이것이 기원전 3세기 이후 수백 년에 걸쳐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오경을 72명의 전문가가 헬라어로 옮겼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따라, 이 헬라어 번역본을 흔히 ‘70인역’ 또는 ‘70인경’이라 합니다. 이 번역본에는 히브리어 아람어 성경에는 없던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외경들의 유래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로 이 70인 역으로 구약을 읽었고, 신약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도 이 헬라어 번역본에서 주로 인용했습니다. 그 뒤 교회에서는 널리 쓰이던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에도 외경에 속한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기에 이르러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이 히브리어 원전을 기준으로 이런 책들을 구약성경에서 따로 떼 내어 다루기 시작했고, 개혁신교회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귀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책들이어서 구약성경의 신앙이 그 이후로 어떻게 발전하여 신약 성경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은 개혁신교회의 구약성경과 목록에 있어서 차이는 없지만, 구분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납니다.

구약성경 (24권)		* 유대인들의 구분법(자료: 예수 벤 시락)
율법서 (토라,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언서 (느비임, 8권)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산지서(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문서 (케투빔)		시편 잠언 율기 전도서 야가 룻기 에레미야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다윗

위와 같이, 구약성경의 정경의 목록에 차이가 생긴 것은 어떤 사본이 더 권위 있는지를 인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구약성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1세기 얀니야 회의에서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만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70인역이 타나크와 비교하여 볼 때 잘못된 번역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는 70인역을 인용하였기에 초기 그리스도교는 외경을 포함한 70인역 번역본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성경 목록 대신, 유대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한 타나크를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경이 포함되지 않은 현재의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정경화 과정			
시기	정경화 과정	히브리어 사본	번역 사본
기원전 6세기 이전	성경 각 부분, 각 권이 단편으로 기록되어 전해 내려옴.	-	-
기원전 5~3세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가 핵심적인 권위를 인정받음.	-	-
기원전 2세기~주후 1세기		사해사본	헬라어 70인역
주후 1~2세기	표준 자음 본문으로 원 마소라 본문이 인정받음.		시리아어 페쉬타
주후 4세기	기독교의 정경 개념 확립.		
주후 5세기			라틴어 불가타
주후 6~10세기	마소라 모음, 액센트, 주가 붙은 본문이 됨.	알렘포 사본	
주후 11세기		레닌그라드 사본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정경화 과정보다 더 매끄러운 논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27권이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된 후, 개혁신교회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장, 절 구분도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제네바 성경은 모든 본문

에 대한 장, 절 구분을 확립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성경의 장(chapter) 구분은 켄터베리의 대감독인 스티븐 랭턴에 의해 13세기경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절(verbs) 구분은 : 구약의 경우 - 유대인 랍비인 나단에 의해서 1448년에 이루어졌고, 신약의 경우 - 로버트 스테파누스가 1551년에 제네바에서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헬라어 신약 성경 본문을 출판할 때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정경에 관하여 한 눈에 보기	
구약 39권의 정경 확정 AD 90년 암니아 회의	
신약 27권의 정경 확정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외경	로만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정경에 외경을 포함하고 있음
위경	처음부터 외경에도 포함되지 못한 책들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동현(구약학교수)
구약성경을 읽는 법에 관한 글이지만, 신약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내용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글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u>그 글을 쓴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u>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읽는 사람이 제 좋도록 제 생각에 맞추어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 생각은 접어 두고, 쓰인 문장에서 드러나는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p> <p>▶ 무엇보다 성경이 ‘본디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한글 성경의 문장이 뜻하는 바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영적인 뜻을 찾아보려 한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디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을 제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소서.”</p> <p>▶ 성경이 본디 말하려는 바를 들으려면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을 문맥을 따라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성경 본문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각 본문의 짜임새와 흐름을 잘 살펴보아서 그 전체가 말하려 하는 바와 또 그 각 부분이 그 본문에서 차지하는 자리와 그에 따른 기능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 시편 14:1)</p> <p>▶ <u>글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읽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u> 성경은 우리의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꾸고 이끌어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그저 종교적인 지식을 넓히려는 또는 종교적인 경험을 깊게 하려고만 성경을 읽는다면, 이는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단호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p>
♥ 성경을 매일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공적이 쌓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 정한 분량 읽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선입관 뛰어넘기

홀로 푸는 과제

창조 전 상태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p>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p> <p>6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u>궁창</u>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7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하나님이 궁창을 <u>하늘</u>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p> <p>9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u>물이</u>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u>채소</u>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u>나무</u>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p>	<p>14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u>광명체</u>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p> <p>20하나님이 이르시되 <u>물들은</u>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u>궁창에는</u>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p> <p>24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u>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u>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u>사람</u>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 2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p>

2:1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4a**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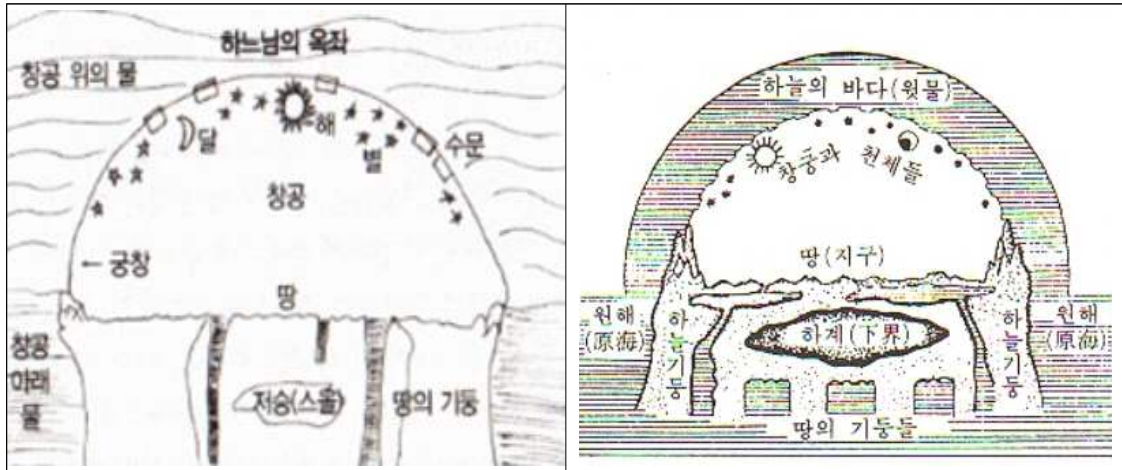
창조 전 상태	2:4b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p>7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생물)이 되니라 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p> <p>9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p> <p>10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돌렸으며 12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3)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14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p> <p>15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p> <p>18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냐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p> <p>21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p>	

1. 창세기 1-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서로 같은 이야기인가, 다른 이야기인가?
2. 같은 이야기라면 왜 같다고 생각하는가?
3. 만약 다른 이야기라면 무엇이 다른가?
4. 창조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고 아래 도표를 메워보라.

구 분	1:1-2:4a	2:4b-25
창조 전 상태		
물의 역할	창조에 (도움 / 적대요소)	창조에 (도움 / 적대요소)
인간창조순서		
창조 기간		
창조 순서	① ④ ② ⑤ ③ ⑥	
전체 속에서 인간창조 순서		
하나님 이름		
창조 도구		
창조 방법		
창조 초점	“천지를 창조”(1:1) →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2:4b) →
문 체		

4. 도표를 메워보니 같은 이야기로 보이는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보이는가?
5. 도표상으로는 분명 다른 이야기이고, 그 내용도 완전히 다른데, 왜 나는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가?
6. 혹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무서운 것은 아닌가?
7. 무섭다고 하면 누가 나를 무섭게 만들었는가? 성경인가, 사람인가, 나인가?
8.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어보기 위해 의심해 보는 것은 어떤가?

9.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둥근 지구가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하늘이 3층으로 된 원반형 지구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2)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시편 75:3)

“⁴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 보아라. ⁵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그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그었느냐? ⁶어디에 땅을 받치는 기둥이 박혀 있느냐? 그 누가 세상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욥기 38:4-6)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사무엘상 2:8b)

10.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고 하는 “왜”에 관심이 있다. 성경은 역사 교과서도 아니지만, 과학 교과서도 아니다. “어떻게”는 학교, “왜”는 교회이다. 교과서는 당연히 ‘어떻게’를 가르쳐야 하지만, 성경은 ‘왜’를 가르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한다.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의미를 찾는다.

2. 구약 들어가기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눅 24:44)으로 서술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구약의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은 율법서(토라), 예언서(느비임), 그리고 성문서(케투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히브리어 구약성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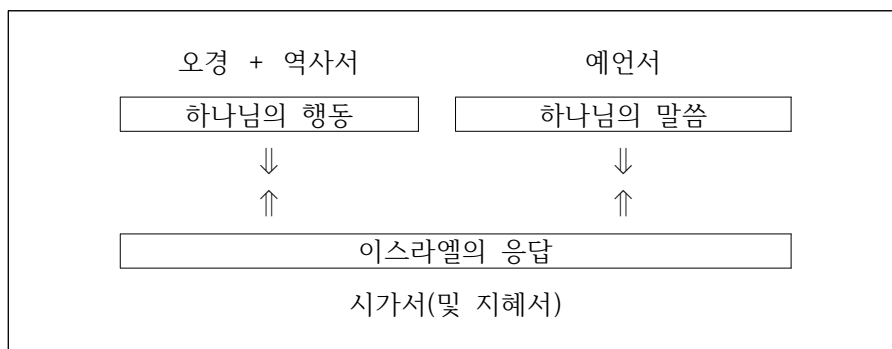
율법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예언서 (느비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6권)		전기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예언서 (3권)	후기예언서
	호세아 ~ 말라기	소예언서 (12권)	
성문서 (케투빔)	시편 욥기 잠언 (3권)		
	룻 기 : 오순절/맥추절-시반월 6일 (5-6월) 아가서 : 유월절-닛산월 15-21일 (3-4월) 전도서 : 초막절/수장절-티슈리월 (9-10월) 애 가 : 성전파괴일-아브월9일 (7-8월) 에스더 : 부림절-아달월 14일 (2-3월) (5권)		5두루마리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역사서 (3권)	
	다니엘	묵시서 (1권)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회는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본(LXX)의 순서 배열을 따릅니다. 따라서 개신교회의 구약성경은 다음과 같이 4구분의 원칙을 따라서 배열하고 구성합니다.

❖ 기독교 개신교 구약성경 ❖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역사서	신명기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7권)
	역대기역사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5권)
성문서 (시가서/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예언서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5권)
	소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

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행위’(Acts)를,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Words)을 보여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위로부터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가서(및 지혜서)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말합니다. 즉, 시가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에 대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응답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중심축은 하나가 아닌,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신앙고백적인 응답’(Response)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삶의 높낮이를 모두 드러내 보여주는, ‘인생의 거울’이 되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3. 예언서 들어가기

구약의 예언서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분류에 따르면 후기예언서에 속한 책을 가리킵니다. 후기예언서는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권과 분량이 적은 ‘소예언서’(호세아~말라기) 12권이 있습니다. 총 15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개신교 구약성경은 여기에 예레미야애가와 다니엘이 포함되어 총 17권의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서예언자들의 활동 연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역사표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1에는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나옵니다. 간혹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예언서는 “유다 왕 000와 이스라엘 왕 000 시대에 예언자 000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말씀이 선포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리 ‘예’(豫)+‘말씀’(言), 즉 ‘미리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말길 ‘예’(預)+‘말씀’(言)으로 ‘말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예언자를 통해서, 특정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특정한 시대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시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922년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최초의 문서예언자는 아모스입니다. 그는 남 왕국 출신으로 주전 760년에 북 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북 왕국 출신 예언자인 호세아도 주전 750-725년에 자신의 나라인 북 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이 두 명의 예언자만 북 왕국에서 활동했고, 그 나머지 예언자들은 모두 남 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 왕국에 망하고 난 이후 주전 701년에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로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40-701년까지, 그리고 미가는 주전 740(?)~700년까지 남 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미가의 연대에 물음표를 해놓은 것은 그의 활동의 출발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로서, 이사야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미가는 주로 자신의 출생지인 모레

셋이라고 하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활동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수도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시골에서 사역하였습니다. 이 네 명(아모수, 호세아, 이사야, 미가)의 예언자를 주전 700년대에 활동했다고 하여 주전 ‘8세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전 600년대에 등장해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주전 ‘7세기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주전 650년경에 나훔, 주전 630년경에 스바냐, 그리고 주전 600년경에 하박국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와 하박국의 활동 사이인 주전 622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주전 627/6-585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주전 587년에 있었던 남 유다의 멸망 사건을 경험한 유일한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불행한 예언자로 사역 말년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아시리아에게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남 왕국 유다가 멸망한 시기인 주전 722-587년까지의 이 시대를 ‘아시리아 통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후부터 유다의 포로민들이 귀환하기 직전인 주전 587-539년까지를 ‘바벨론 포로기’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1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93년에 그곳에서 예언자로 소명 받고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예언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 남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오바댜가 예루살렘에서 에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남 왕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바벨론이 주전 539년 페르시아에 합병됩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바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합병되고 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즉 주전 539-333년 약 200년 동안을 ‘페르시아 통치기’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주전 538년). 귀환 이후 학개가 주전 520년에, 스가랴가 주전 520-518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데, 이들은 주로 성전 건축을 위해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됩니다. ‘제1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이것을 ‘제 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주전 400년 중반 혹은 후반에 활동한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을 정리해 보면, 최초의 문서 예언자는 아모스이고, 마지막 문서 예언자는 말라기입니다. 따라서 문서 예언자들은 주전 8세기에서 주전 5세기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주전 333년에 등장한 이후 로마가 패권을 차지하여 통치하기 시작한 주전 64년까지를 ‘그리스 통치기’라고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탄생을 0년(혹은 주전 4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에 활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잡한 15명의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 연대를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빠진 두 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와 요엘 예언자입니다. 이 두 명의 예언자들은 정확한 활동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표에서 뺐습니다. 더 이상의 문서 예언자들이 보고되지 않은 시기인 그리스 통치기(주전 333-64년) 가운데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전 164년을 배경으로 나온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문서 예언자 활동 연대

주전 922년	남북왕국 분열			
	760년	아모스		북 왕국
	750-725년	호세아		북 왕국
	735년 유다와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군의 전쟁			
	740-701년	이사야		남 왕국
	740(?) - 700년	미가		남 왕국
722년	아시리아에 의한 북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아시리아 통치기	
	701년 아시리아 산헤립의 유다 침공			
	650년경	나훔		
	630년경	스바냐		
	627/6-585년	예레미야		
	622년 요시야의 종교개혁			
	600년경	하박국		요나
587년	바벨론에 의한 남 왕국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기	
	593-571년	에스겔		바벨론 포로지
	587년 이후	오바댜		예루살렘
539년	고레스의 칙령(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 멸망)과 포로귀환		페르시아 통치기	
	제2이사야			
	520년	학개		
	520-518년	스가랴		
	515년 제2성전(스룹바벨 성전) 봉헌			
	400년대 중/후반 말라기			
	400년대 후반기 제3이사야 요엘 (오바댜)			
333년	알렉산더 대왕(잇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 승리)		그리스 통치기	
	165년	다니엘서		
	164년 마카비혁명 동안의 성전 정화와 재 봉헌			
64년	로마의 등장(로마에 의한 팔레스타인 정복)		로마 통치기	

1. 예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언서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정체성을 밝혀주는 문구는 ‘코 아파르 아도나이’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로, 지금부터 이르는 내용이 예언자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代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의사와 다를지라도 부득이 전달받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고 하니라”(렘 20:14,18).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전될 수 없나이다”(렘 20:9).

예언서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전승들을 기초로 삼아, 당대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동시대의 다른 나라들과 세계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분명히 가집니다. 즉, 예언서는 ① 유대 민족의 국가 기관들과 정체성 자체를 위협하고 파괴한 국제적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을 제공하는 책인 동시에 ② 민족적 패배와 굴욕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회복과 영적 갱신까지 내다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임입니다.

2.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철학적 사조가 정신을 탐구하는 선구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그들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언을 직업으로 삼는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듣기 좋은 예언을 하며 매수되는 것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또한, 황홀경 예언자들처럼 무의식중에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설교를 정교하고 세련된 시적인 신탁의 형태로 전달하였습니다.⁵⁾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며 온갖 사회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혈연, 지연, 제의에 근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으로부터 고백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선고한 것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 또한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 그 예언들이 다루는 사건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보다, 이후의 시대에도 미치는 풍성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예언자라는 말은 prophet으로 번역하는데, 황홀경에 빠져 모르는 소리를 하거나 행동을 하던 mantis(점술가)나 manteuomai(점치다)와는 구별되어 사용합니다. 점술가처럼 무아지경에서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달랐던, 이스라엘 예언이 지닌 선포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3. 예언자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기능으로 구분하였을 때		
궁중 예언자	나단, 갓, 아히야, 이사야 등	주로 궁중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군사 문제, 국내외 정치 문제를 예언합니다.
제의 예언자	나훔, 하박국, 요엘 등	제의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주로 포로 시대에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개별 예언자	아모스 이후	주로 단독으로 등장하여 국가, 제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형식으로 구분하였을 때		
구전 예언자	아브라함, 모세, 아론, 사무엘 등	자신의 이름이 담긴 예언서를 남기지는 못한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자신의 이름이 붙은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로, 고전 예언자, 정경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별 예언자는 모두 문서 예언자에 속합니다.

4. 3대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예언서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책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전기 예언서라고 구분하는데, 사무엘도 랍비 전승에서는 예언자이고, 그 역사가 예언이 성취된 과정이라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책 대다수는 유대교에서는 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 애가는 이 구분에 따르면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문서 (케투빔)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 룻기 예레미야애가 에스더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다니엘

5. 에른스트 예니의 16 예언서 구분법⁶⁾

기원전 760-560년경에 활약한 예언자들은 주로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등) 그러나 보다 후대에 활약한 예언자들은 주로 종말적 구원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학개, 스가랴 등)

6) 박동현, 『구약성경과 구약학』, p.74.

시기	포로기 이전 시대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 시대								
	전기 (BC 8세기)				후기 (BC 7세기)				전기 (BC 6세기)				후기 (BC. 5세기~)				
선포대상	북 (북왕국)		남 (유다 예루살렘)		북 (앗크르 바벨론)		남 (유다)		북 (바벨론 에돔)		남 (예루살렘)		북 (바벨론 앗수르)		남 (예루살렘)		
환상유무	○	X	○	X	○	X	○	X	○	X	○	X	○	X	○	X	
예언자	암	호	사	미	나	합	렘	습	겔	읍	스	학	단	온	올	말	
	아 모 스	호 세 아	(제1) 이사야	미 가	나 훔	하 박 국	예 레 미 야	스 바 냐	에 스 겔	오 바 다	스 가 라	학 개	다 니 엘	요 나	요 엘	말 라 기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예언특징	심판										종말적 구원						

6. 예언자에 대한 오해?

예언자를 보통 선지자라는 말로도 부르는데, 그 뜻은 미리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면, 흔히 앞날을 미리 예기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성경의 예언자가 아닌 당대 문화에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은 실제로 왕이나 국가의 길흉, 개인의 운명을 미리 점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았습니다. 왕, 또는 국가와 대립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주로 구원의 예언을 함으로써 권력자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문서 예언자들의 임무는 사람의 지금의 행위가 미래 역사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왕, 또는 국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종종 선포합니다. 권력자들이 곧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 보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적이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감을 주는 말도 서슴지 않는 용기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언에는 사회적 관심사, 윤리적 관심사가 골고루 강하게 드러납니다.⁷⁾

갓월드(Gottwald)나 브루그만(Brueggemann) 같은 학자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모습을 사회학적 비평의 관점에서, 이론보다 실천을 중요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법과 정의를 세우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언자들은 구체적 공동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의 갖가지 불의를 고발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7) 김영진 외 15인 공저, 『구약성경개론』, (대한성서공회), pp.541-542.

말라기

말라기서는 예언서 전체를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성경에서도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배치된다. 이는 ‘나의 사자’라고 부르는 말라기 예언자와 예수님의 활동 이전에 활약한 ‘세례자 요한’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편집 의도를 반영한다.

1. 말라기 소개

1) 이름의 뜻:

선지자 말라기에 대해서는 이 책 외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3:1)이다.

2) 활동기간:

말라기는 주전 5세기 중반 이후, 즉 480/46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⁸⁾ 이 예언서에 따르면, 백성은 이미 유배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졌으며, 예식을 다시 거행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된 것으로 보아, 유배 이후 제 2성전이 완성된 주전 515년 이후에 쓰였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이방인과의 혼혈혼 문제에 관한) 에스라의 대개혁은 아직 시작하기 전으로 보인다. 이 개혁은 주전 440년경에 가서야 실행된다.

2. 역사 배경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실현되지 않고 또 고대의 인과응보사상도 그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세태가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2:17). 그리고 “그들이(열왕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밭의 먼지를 닦아 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사 49:23)라는 제 2이사야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유다는 페르시아의 조그마한 속국으로 정치 억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8) 저작 연대를 주전 5세기 중반으로 보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 시기는 학개와 스가랴가 일으킨 초기의 희망들이 물거품이 되면서 일어난 무관심과 환멸의 시대이다. 제사장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1:6-2:9) 이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과 재혼하는 일들로 민족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며(2:10-15), 십일조와 봉헌물도 소홀히 하였다(3:6-12). 이런 문제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기간 중에도 언급된다(주전 약 400).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추정에 불과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로기 후기의 귀환 공동체가 당면한 커다란 시련은 이방문화의 위협이었다. 외세의 압력은 결국 전통 토라(율법)와 제의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도이취는 말라기서가 보여주는 사회상황은 도덕성의 해일로 옳고 그름의 판단 분별의 혼돈과 이혼 및 잡혼의 성행 그리고 여기에 부수된 전통적 신앙의 약화 등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세하에서 말라기는 유다인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억압

제2 이사야(이사야 40-55장)의 희망은 도래하지 않고, 유다는 그저 페르시아의 작은 자치구로 존재하며 정치적 간섭을 받고 있었다.

2) 성전 제의에 대한 비관적 태도

제의 습관에 대한 나태와 이완도 큰 문제였는데(1:6-2:9; 3:6-12),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유층은 제물의 일부를 덜 내거나 조악한 제물을 바치는 잔꾀를 부렸다. 특별히 말라기는 현재의 갈등이 지도층 간의 계급 투쟁에 있다고 보고 현재의 성직 그룹이 와해되고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이방 문화의 위협(결혼/이혼의 남용)

귀환 공동체가 당면했던 가장 큰 위협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다(2:10-16). 혼혈결혼은 전통 신앙의 약화로 인한 도덕성의 해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분별력(정체성) 상실까지 유발시켰다. 특별히 유다 지도자들과 사회적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하던 이들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였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다. 말라기서는 혼혈혼과 이혼을 엄금하고 있다(2:10-16).

3. 말라기의 구조와 간추린 내용

주제		구절
6개의 논쟁	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1:2~5
	② 제사장들의 성의 없는 직무수행 비판	1:6~2:9
	③ 잘못된 혼인(이방여인)	2:10~16
	④ 악인들의 변명과 하나님의 공의 문제	2:17~3:5
	⑤ 십일조와 헌물의 문제(회개)	3:6~12
	⑥ 악인들의 변명과 의인의 고난 / * 여호와의 심판 날!	3:13~4:3
경고	율법, 엘리야! (*눅 1:17, 마11:14과 연결)	4:4~6

* 제2성전기의 안이해진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6개의 주제 논쟁)+경고(여호와의 날) 엘리야!

1)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한다(1:1-5).

첫 번째 신탁은 절망에 빠진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말씀이다. 페르시아의 지배 하에서 수탈당하고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선민인가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말라기는 나바티안족의 습격을 받아 황폐케 된 에돔을 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에돔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1:2) 여전히 당신 백성에게 신실하시다고 한다.

2) 아예 성전 문을 닫아걸었으면 좋겠구나(1:6-2:9).

두 번째 신탁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젓밥에만 신경 쓰는 거짓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이다. 신명기 법전은 흠 없는 짐승만 제물로 바치도록 규정하였지만(신 15:21),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이 규정을 무시하였다. 또한 자식은 부모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지만, 제사장들은 아버지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1:6)은 큰 죄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제사장의 본분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깊이 성찰하도록 한다.

3)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2:10-16).

세 번째 신탁은 이방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신 숭배를 도입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12). 하나님은 이방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도 허락치 않으신다(16).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거나 조강지처와 이혼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한다. 잡혼(雜婚)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며, 이혼 역시 아내와의 약조를 저버리고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기에 속죄제 때 울고불며 예물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결혼의 신성함을 되새기게 한다.

4) 사자를 보내어 나의 길을 닦으리라(2:17-3:5).

네 번째 신탁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공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며, 그는 우선 제사장들을 정화할 것이며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하도록 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전한다. 그를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성전에서 이스라엘에게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가난하고 권리 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시리라고 대답한다(3:5).

5)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3:6-12).

다섯 번째 신탁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이들이라고 말한다. 말라기는 가뭄과 흉작은 백성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탓이라고 보고(10), 백성들이 그 몫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출을 풍성케 하며(11),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한다(12).

6) 내가 나서는 그날이 오면(3:13-4:3).

여섯 번째 신탁은 네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고 회의를 느끼는 이들에게 실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고 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날이지만(3:17-18),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된다고 한다(4:1).

7) 편집후기(4:4-6).

예언자 엘리야가 주님의 날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이날이 오기 전에 오는 예언자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화목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한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세를 시켜 백성에게 내린 법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도록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⁹⁾

4. 신학적 주제들

1) 국수주의와 형식적 예배 비판

말라기서에서는 요엘서나 오바다서에 등장하는 국수주의적 사상(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 자기 나라의 국민적 특수성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고 남의 나라의 것은 배척하는 이데올로기)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온다는 보수적 선민의식이 다시금 강조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에돔의 멸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다(1:2-5). 이러한 국수주의 혹은 민족주의적 노선은 혼혈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는다(2:10-16). 특별히 말라기는 희생제물, 십일조, 성전 직무자들의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경외심과 사랑이 배제된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한다(1:6-14). 형식적 제사 의식보다 마음을 다한 진실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잘못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들(1:6-8),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백성(3:6-12)이 고발당하는데, 성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개와 스가랴의 신탁의 붕괴를 의미하기도 하다.

2) 하나님의 공의

제2 성전 건축 이후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하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자체에 대한 회의는 유다 공동체를 암울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불평이 인간 역사 안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다. 말라기는 평화의 부재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9) 스미스는 말라기에 ‘사랑’, ‘공경’, ‘신실성’과 같은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신명기의 영향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창조주(2:10)이시기에 종국에는 악의 세력을 패망시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피력한다(3:19-21). 아직 구원의 때는 이르지 않았으나 언젠가 주님의 날이 오면, 인간의 죄는 종식되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2:17-3:5).

3) 구약성경에서의 위치

말라기서의 맺음말인 4:5에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언서 부분의 마지막이 엘리야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자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엘리야가 불 병거의 불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통(왕하 2장)은 그가 언젠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통을 형성하고 이를 전승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승의 영향으로 신약성경에서는 광야 전승 안에 세례자 요한과 엘리야가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요한과 예수님께 그들이 바로 엘리야인지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광야에서의 활동과 나인성에서의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나는 기적(눅 7:11-17)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왕상 17:8-24)를 연상하게 하고, 감람산에서 받은 천사의 위로(눅 22:43)는 엘리야가 만났던 천사의 시중(왕상 19:5-8)을 기억하게 하며, 불을 지르러 왔다는 언급(눅 12:49)은 엘리야의 심판하는 불(왕하 1:10,14)을 반영합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변모에서도 엘리야가 등장합니다(마 17:1-8; 막 9:2-8; 눅 9:28-36). 이러한 내용들은 말라기서가 왜 구약성경 마지막에 배치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님 앞에 등장할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 전승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5. 메시지

1) 포로기 이후 예언서의 특색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1) 말라기서는 요엘서나 오바다서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유다 중심적인 국수주의 사상을 강하게 담고 있다. 말라기는 에돔의 멸망을 유다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표시로 삼고 있다(1:2-5). 또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2:10-12). 이 같은 국수주의적인 국가지상주의가 포로기 이후 시대의 예언서의 특색이라고 뉴섬은 보고 있다.

(2) 제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다.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드리는 제사장들(1:8)과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백성들(3:8-9)은 책망을 듣게 된다. 말라기의 이 같은 특색은 이스라엘이 처한 시기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제의 준수를 통해 자신의 명맥을 보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2)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

상에 공의가 있는가? 등의 기본적인 회의가 팽배해져서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이 해이해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 같은 회의가 사회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도덕적 회의와 기회주의적 물질주의가 판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계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다.

3)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2:10), 이방인들도 주님을 섬긴다고 보았다(1:11).

하나님은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결국 망할 것이며(4:1), 의인들은 구속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4:2).

4) 거룩하신 하나님은 순결한 예배를 요구하신다.

말라기는 도덕의 순결보다는 제의의 순결을 강조하지만, 결국 올바른 예물을 바치는 깨끗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한다.¹⁰⁾ 조강지처를 지키며 악한 자를 도와 공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며 서약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새기기>

1.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신앙에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어느 때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는가?

2. 말라기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어른들과 자식들의 마음을 서로에게 돌려 화목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고한다. 우리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10) 도이취는 말라기의 주요 관심이 올바른 제의이며, 제의의 토대는 '토라'(2:6-9)에 있다고 한다. 도이취는 여기의 토라는 제사, 결혼, 십일조, 보응 등 모든 생활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았다.